

“비평적 감식안 갖춘 전문사서 키워야 한다”

《아동문학 어떻게 이용할까》 펴낸 유소영 교수

유소영 교수(59, 건국대 문헌정보학과)가 펴낸 《아동문학 어떻게 이용할까》(건국대학교출판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동문학 비평서가 아니다. 지은이가 머리말에서 밝혔듯, 이 책은 “좋은 책은 어떤 것인가, 그런 책들은 왜 좋은가 또 그런 책들을 이용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느낌 등을 잘 표현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분명히 비평작업의 결과물이다.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가려내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애초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교수는 엄정한 비평행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흥미와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좋은 어린이책의 제1조건은 ‘유일성’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은 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이 점을 감안하지 않고 어른의 시각에서 가려낸 책을 일방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강변해서는 안됩니다. 그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라는 뜻이죠.”

유일성 다음으로 유교수가 내세우는 좋은 책의 조건은 ‘흥미유발과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다. 우리가 놓여 있는 문화적 환경을 생각하면, 유교수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다매체 시대를 맞이해 독서교육에서 강조돼야 할 것은 책 읽기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책 읽기가 당연시되지 않는 시대에 흥미유발이야말로 어린이를 책의 세계로 이끄는 실질적인 요인이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는 그 어느 가치관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이야말로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값진 ‘유산’인 것이다.



유소영 교수

건국대출판부/A5변형/446면/15,000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비평적 수준에 오른 어린이문학 책을 썼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당장 사서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감지하게 한다.

“일반도서관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말이지만, 특히 어린이도서관의 사서에게는 책을 분류·보관하는 전통적인 역할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좋은 어린이책을 가려낼 수 있는 감식안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독서교육을 펼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유교수가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는 속 깊은 이유가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즈음 출판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단연 어린이책이다.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책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에 자극받아 출판사들이 경쟁적으로 좋은 책을 펴낸다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유교수는 이런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있다고 본다. 각 도서관이 좋은 어린이책을 구입하고, 이용자에게 추천한다면, 출판시장의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것이다.

유교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평준화정책으로 학교도서관이 무력화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시설이나 장서에서 웬만한 대학도서관에 뒤지지 않는 학교도서관들이 여럿 있었으나 평준화 정책 이후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다행히 사회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창의적인 사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창의력을 키우는데 책만한 매체가 어디 있겠어요. 각급 도서관과 사서들이 독서교육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수는 이 책에서 어린이문학을 그림책·동시·옛이야기·판타지·창작동화·전기 등으로 나누고, 각 장르별 특성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좋은 책을 추천했다. 더불어, 책제목대로 각 장르의 좋은 책을 어떻게 활용해 어린이들의 읽기능력을 키워나갈 것인가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독서교육법 실어

“독서교육은 작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이끌면서 어린이들의 표현력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즉각 활용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애를 썼는데, 각별히 사서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교수는 현재 어린이책을 읽고 토론하기를 즐겨워 하는 건국대 교수들이 만든 ‘전래동화연구회’(www.folktale.or.kr)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는 충청도 지역의 전래동화를 모은 《귀신 이야기 옛들은 소금장수》(논장)를 펴내기도 했다. - 이권우 기자